

# 제목:메가시티는 지방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번 202310856

이름 박경훈

## 1. 서론

나는 메가시티 서울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지금은 약10%의 땅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살면서 지방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시점이다. 이때 지방을 살려서 지역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변에 경기도의 일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에서 메가 시티 된 서울로 가려고 할 것이기때문에 지방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확한 자료와 출처를 바탕으로 글을 서술하여 논리적으로 반대입장을 내려고 한다.

사례1: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2억9490 만원이다. 5개 광역시는 4억4135만원, 기타 지방은 2억6577만원으로 서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서울과는 10억2933만원이 차이나 5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지난 2021년부터는 서울과 지방이 10억원 이상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14)

주장1: 김일수 DS투자증권 상무는 "서울을 메가시티로 키우는 것은 도시 행정과 정책 일원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구 밀집을 가중화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는 지방 광역도시의 메가시티 정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비용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산 확대를 위한 주거, 교육시설의 선택과 집중,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헬스케어·사회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

## 2. 본론

필자는 메가시티 서울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 2.1 메가시티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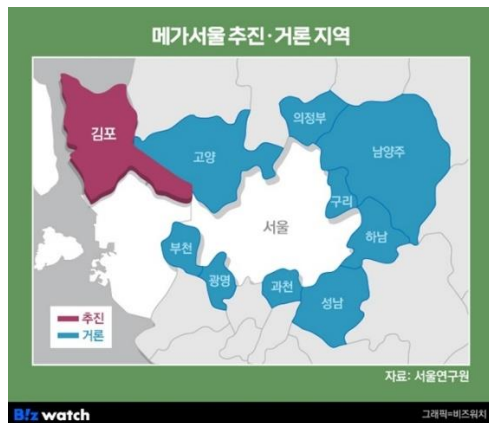
메가시티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가리킨다.8)

현재 서울의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940만 명2)으로 메가시티의 근접하다. 국민의 힘 정당은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확히는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려는 계획이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도의 일부 도시를 "편입"하여 서울화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하는 국민의 힘 의견과 추진방안을 들어보겠다.

2023년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김포-서울 편입을 공론화시켰다.9)여당은 뒤이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를 꾸리고 김포 외에 고양·구리·하남·부천·광명·과천을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편입론은 성남, 남양주까지 퍼지고 있다.1) 뉴시티 모델로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가 메가시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뉴욕, 파리,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5)

국민의 힘의 대표 김기현 대표는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3)



7)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논란의 쟁점은 메가시티의 개념과 방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로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쟁점1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즉 도시 안의 사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지 면적도 함께 늘리는 것이 메가시티가 아니다. 서울 내부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내부의 인구가 부족하니 외부의 인구를 끌어들이자는 것은 무책임 한 것이다. 그러면 메가시티 된 서울도 인구가 서서히 감소된다면 또다시 주변의 도시들을 편입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반복돼서 악순환과 지방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부족한데 오히려 수도권은 서로의 인구를 점점 합치려고 한다면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은 매우 높아진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인구나 면적이 경쟁력이라면, 인도 뭍바이 대도시권이나 카이로 대도시권은 국제적 도시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도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것은 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 체계로 인구는 600만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해외 사례의 경우 행정구역부터 묶고 메가시티가 된 게 아니다"라며 "주요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메가시티로 변화,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일단 (해외 사례를) 따라 하고 이후에 잘 살아보자는 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4)

이처럼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세계 주요 도시들은 주변 도시들을 편입하여 도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의 특징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신흥산업으로 바뀌어서 발전을 합니다. 그리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서로의 산업을 도와줍니다. 인프라와 특색을 갖추고 차별화 있게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서로의 톱니바퀴를 만 물려서 돌아가게 하고 각각의 톱니바퀴에 맞는 기름칠을 자주 해서 삐걱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맞는다면 4)에서 거론된 뭍바이와 카이로가 국제적인 대도시가 돼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

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메가시티 서울이 완성이 된다면 서울은 거대한 토네이도가 되어 지방의 인구 대부분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쟁점 2 해외의 메가시티 대부분은 주변의 도시를 한 도시 안의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를 합해서 연합체를 만들고 있다. 그 사례로 게이한신이 있다. 게이한신은 원래 가지고 있던 산업과 주변 도시들의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역 내부의 힘을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철도를 세밀하고 유동인구에 맞게 설계해서 완성을 하였다. 결국에는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었다.

각 지자체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함께 가입해 재난과 의료, 산업, 환경 문제 등에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보듯 도시가 편입되거나 통합된 게 아닌, 일종의 연합체 형태입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 집중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수도를 확대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10)

이 기사의 말처럼 연합하여 힘을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메가시티를 만든 게이한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사카-고베-교토로 게임한 신은 인구가 1870만 명으로 연간 GDP가 6713억 달러에 이르며, 도쿄 수도권에 이어 일본 제2의 경제권으로 손꼽힌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사카의 발달한 상업과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이 한 축을 담당하고 고베의 무역과 조선·철강, 기계·뿔·사케 산업도 한 축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교토는 서비스업(관광업) 비중이 크고, 전기·전자 제조업도 발달했다. 6)이렇게 큰 대도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철도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6) 일본의 게이한신 메가시티는 오사카(大阪)-고베(神戸)-교토(京都) 3개 도시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

이렇게 도시 안의 유동인구와 생활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발표하고 일단은 해보자는 식의 생각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특히나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의 이동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로 파리와 베이징이 있다.

2016년 파리 주변 131개 기초 자치단체가 11개 관할구역으로 크게 묶여 그랑 파리 메트로폴이라는 행정기구가 됐는데요. 파리와 그랑 파리는 엄연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파리를 확대한 게 아니

라, 파리와 주변 지역의 연대를 강화해, 경제적 기능과 교통망 등을 개선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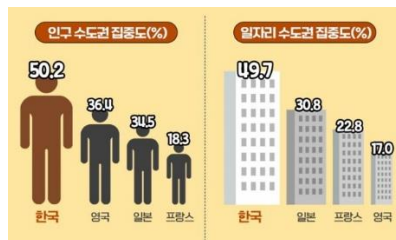
중국이 2014년부터 베이징과 주변의 텐진, 허베이성을 묶어서 추진 중인 '징진지 일체화 전략'도 메가시티로 언급되는데요. 이 역시 베이징과 이 도시들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10)

결국 메가시티의 본질은 상호 공동체나, 지역 간 경제통합, 분야별 협력 공동체로써 중심도시에 편입이나 통합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합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 2.2 지방발전 선행의 필요성

지방발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서 대학, 일자리, 인프라가 차별되면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현재 상황을 보도 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12% 수준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중견기업의 76%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11)



(출처: 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의 집중도에 대한 자료)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 비수도권보다 50만 9천 원(작년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6~2020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 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했다. 12)

자료를 보면 인구와 일자의 집중도가 수도권에 약 50%의 육박할 정도로 지방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의 비율이 수도권에서만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장 점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출산은 어렵고 집값은 치솟고 교 통의 어려움과 과도한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수도권에 더 낮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각각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은 메가시티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위에서 게이한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말이다. 현재 지방은 인구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의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라며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 있는 발 전을 하려면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야 한다"4)

그리고 지방에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게이한신처럼 특색 있고 원래부터 있던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여러 산업을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충청권에서 메가시티 격의 이날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 특자 체인 가치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이 더욱 속도를 낸 전망이다. 충청 4개 시도는 충청권 특자체 출범을 위해 합의된 규약(안)을 내년 1-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4개 시도 의회 의결과 3월 중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자체를 본격 출범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10일 3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열어 초광역 의회 의원 정수(16명), 의원 임기(2년), 의장(1명)·부의장(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의 운영,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규약(안)에 대해 1차 합의를 이끌어냈다. 13)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합하여 결국 지방에 대전, 광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광역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문화, 사회를 안정화하고 대한민국의 인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균등하게 분산하여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특히 출산과 집값을 해결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의 증가를 막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내야 합니다.

### 3. 반론/재반론

#### 3.1 반론

메가시티 서울 찬성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면서 "이것은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균형 발전을 이어나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일이지, 윈트랙으로 가는 건 근시안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마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15)

#### 3.2재반론

바로 반박을 한 내용들을 재반박해보겠다.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꼭 서울에 편입 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외의 여러 메가시티들은 지역간의 연합을 하여 메가시티를 만들고 문제점들을 해결 한 것이다.

프랑스의 파리과 그랑파리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과 톈진과 허베이성과 일본의 게이한신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메가시티 모두 연합된 상태에서 경제와 교통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해외의 메가시티들은 알면서 어째서 만들어지는 방법은 알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 또한 일본은 약1억2천만인구와 프랑스는 약 6400만인구중국은 약14억2천만인구다. 즉 도쿄에는 전체인구

의 1/10이 중국은 베이징에 전체인구의 약1/7이 프랑스는 파리에 전체인구의 약1/6이 있다. 그러나 서울은 전체인구의 약 2/5(16)가 수도권과 서울의 집중되어서 지방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은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 4. 결론

(정리문구): 메가시티 서울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메가시티의 대한 개념과 해외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하지 말고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각각의 광역시마다 특색 있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제시합니다.

(대안/해법): 메가시티를 지방에 우선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경기도 일부 도시를 편입하여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각각의 특징에 맞게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시를 주축으로 각각의 지역에 특색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망제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높은 집값과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해서 미래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 5. 참고문헌

---

1 **[제물포럼] 메가 서울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천일보 김주용기자 승인 2023.11.26 16:55수정 2023.11.26 17:03 2023.11.28 접속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532>

2 KOSIS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10, 2023.11.28,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2023.11.28 접속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3 매일경제 **김포하남구리를 서울로 편입?..메가시타의 경제학** [스페셜리포트]

김경민, 배준희, 정다운, 최창원 기자 입력 : 2023.11.10 14:49:43 최종수정 : 2023.11.17 15:03:22

<https://www.mk.co.kr/economy/view/2023/866351> 2023.11.28 접속

4 매일경제 **'갑론을박' 메가시타 논쟁 들여다보니** [스페셜리포트] 배준희, 최창원 기자 입력 : 2023.11.10 14:49:51 최종수정 : 2023.11.17 15:02:21 <https://www.mk.co.kr/economy/view/2023/866352> 2023.11.28 접속

5 news1뉴스 **국힘,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뉴시타 특위 "통합절차 절차 간소화"**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 2023-11-20 14:34 송고 2023.11.28 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5236602>

6 **[중인] 동상이몽 메가시타** 입력 2023.11.26 13:39 접속2023.11.29 출처: 대전일보

<https://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939>

7 **[메가서울]지도 길쭉해지는데왜김포꼭 집었을까** 입력2023.11.09. 오전 6:31 김진수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20881?sid=101> 접속2023.11.29

8 메가시타 출처: 위키피디아 접속2023.12.02

<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A%B0%80%EC%8B%9C%ED%8B%B0>

---

9메가시타 논의는 어떻게 오염되었나? 김동인 기자 입력 2023.11.20 06:35 접속 2023.1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91#google\\_vignette](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91#google_vignette)

10**[알고보니]수도 확장 메가시타가 세계적인 추세?**

---

입력 2023-11-10 20:15 | 수정 2023-11-10 20:16 이준범 기자 접속2023.1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363\\_36199.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363_36199.html)

11**지방 소멸 시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선진국 정책 훑아보기]**

기자명 유호경 기자 입력 2023.06.16 13:45수정 2023.06.16 14:33접속2023.12.03 출처 : 이코리아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39>)

---

<sup>12</sup>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했다...수도권·광역시도 위기

송고시간2022-11-13 11:00 기자 권희원 접속 2023.12.0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13600003>

<sup>13</sup>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전격 합의 [이중억 기자eok527@daum.net](mailto:이중억_기자@daum.net)웹출고시간2023.12.03 13:00:04 최종수정  
2023.12.03 13:00:04 접속2023.12.03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91433>

<sup>14</sup>[기획] 심화되는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법 있나 권영현 기자 승인 2023.07.23 10:29 접속2023.12.03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508>

<sup>15</sup> 與 조경태 “메가시티 반대는 매국행위”

입력 : 2023-11-28 19:07:08 수정 : 2023-11-28 22:25:06 유지혜 기자 접속 2023.12.03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28514257?OutUrl=naver>

16

출처: KOSIS 출처: 행정안전부, 주요도시 인구(G20회원국) 2023.12.03 접속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12)